

# 지자체 최초 석유에너지 파수꾼 운용

## 전북도, 가짜 석유제품 인한 도민 피해 예방·노인 일자리 창출 기여

전북도가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거머쥔 예정이다.

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개월간 지자체 최초로 '석유에너지 파수꾼'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석유에너지 파수꾼' 제도는 잠마철 석유제품에 빗물이 혼입된 연료 사용과 가짜 석유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신청받아 차량 연료를 분석해 주는 서비스다.

파수꾼으로 불리는 시니어 인력 4명이 2교대로 도청 1층 민원실 입구 옆

안내 창구에서 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제도와 차량 연료 무상 분석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차량 연료 분석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도청 민원실 옆 안내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료채취업체인 코리언모터스(전주시 중화산동 소재)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된다.

채취한 시료를 파수꾼이 한국석유관리원에 보내 배송된 시료를 시험분석 후, 신고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료 채취 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원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에너지 파수꾼'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에 앞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전북도가 선정되며 지자체 최초로 파수꾼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부서와 노인복지부서가 협업해 한국석유관리원,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등과 함께, 도민들에게 가짜 석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됐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가짜 석유제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제공까지 하게 돼 기쁘다"며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석유에너지 파수꾼 제도를 활용 안전한 차량 운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대한민국 빛낸 자랑스런 전북 얼굴들 격려

## 도, 도쿄패럴림픽대회 출전 도 소속 선수 격려회 가져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2020 도쿄 패럴림픽대회에 출전한 전북도 소속 선수 4명에 대해 격려하는 자리

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탁구 백영복·이근우 선수, 사

이클 이도연 선수, 전북장애인체육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14개 종목 150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 2, 은 10, 동 12개를 획득해 종합 41위를 차지했다.

전북도에서는 탁구와 육상, 사이클 등 3개 종목에 4명의 선수가 출전해 탁구 백영복 선수가 남자단체전(TT4-5)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3회 연속 패럴림픽 입상에 도전했던 장애인 육상의 간판스타 전민재 선수의 입상 실패와, 2016 리우대회 은메달을 차지했던 사이클 이도연 선수의 부진으로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회였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을 격려하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환경조성과 장애인체육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행보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2020 도쿄패럴림픽대회에 출전한 전북도 소속 선수 4명에 대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왼쪽부터 도 체육정책과 김수호 팀장, 임익준 과장, 이근우 선수, 송하진 도지사, 도 장애인체육회 노경일 사무처장, 김종훈 부장.)

## 전북도, '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까지 지급

전북도가 도내 1,964여가에 11억 7천 만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어민 공익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어가당 연 60만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며, 현재 시·군별로 지역화폐(카드, 지류 등)를 제작해 지급하고 있으며, 추석 전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 어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로 수산업 법 위반, 농민수당 중복 신청 등 지급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도는 올해 3월 어민 공익수당의 체계적 지급을 위해 신청·접수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전 과정 관리가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어민 공익수당은 대부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어민 공익수당 지급 완료 후

시·군별 부정수급 점검 및 어업인의 기본의무 준수 이행에 위한 지도를 통해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공익적 가치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어촌현장의견 수렴과 '전북도 삼라농정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는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민들에게 이번 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작으나마 용기를 얻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축된 수산업과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온라인 공연장' 운영

전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김정호)이 15일부터 '온라인 공연장'의 막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온라인 공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된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어린이창의체험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4가지 공연을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빛과 모래를 이용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샌드아트', 과학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학미술', 다양한 모양의 비눗방울을 감상할 수 있는 '비눗방울', 그림자들의 이야기 '그림자인형극'으로 이뤄져 있다.

/유호상 기자

## 도 수산기술연구소, 어린 다슬기 78만 마리 방류

전북도가 민물 패류 중 경제적 효용 가치가 높은 다슬기를 생산·방류해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에 앞장선다.

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사라져가는 다슬기 자원회복을 위해 연구소에서 생산한 어린 다슬기 78만 마리를 14일 방류했다고 밝혔다.

방류장소는 남원시 요천(26만 마리), 진안군 섬진강(26만 마리), 임실군 둔남천(26만 마리)이다.

연구소는 자연산 어미 다슬기로부터 자연 산출유도를 통해 어린 다슬기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90일간의 사육관리를 통해 방류 크기인 0.7cm까지 육성했다.

물이 흐르는 하천에 서식하는 다슬

기는 돌 틈이나 모래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한다.

하천바닥에 퇴적된 유기물, 폐사체 및 이끼 등을 주로 먹이로 섭취하므로 수질정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하천의 청소부'로 불린다.

예로부터 다슬기는 타우린,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여 간의 피로 해소를 도와 간 건강을 지키는 효자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의 함량이 적어 현대인의 제일가는 관심사인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어 다슬기를 찾는 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호상 기자

# 조보업 행정부지사,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 고창 오산저수지 관리상태 청취·국민여가캠핑장 추진상황·편의시설 등 점검

조보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14일 고창을 방문, 오산저수지와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오산저수지 점검은 지난해 7월 익산 동화저수지 제방 일부 유실로 농경지가 침수돼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같은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조 부지사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 성경찬, 김만기 도의원은 그동안의 저수지 관리상태 등을 청취하며, 제방과 여수로, 취수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고, 전기비저항탐사기로 제방 누수까지 확인했다.

특히, 그간 점검이 어려워 점검하지 못했던 저수지 상류 유입수 상태와 하류부 주변은 드론을 활용해 꼼꼼하게 살폈다.

또한, '국민여가캠핑장'에서는 캠핑장 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고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캠핑장에서는 ▲지붕 누수 및 손상 여부, ▲기둥의 균열 및 손상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가스 중간밸브 및 호스의 설



조보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14일 고창을 방문, 오산저수지와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치 여부, ▲시설 내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등도 살폈다.


조보업 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할 것"이라며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에 힘을 모으달

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시책이다.

올해는 지난 8월 23일부터 이날 17일까지 도내 1,500여 개소 시설을 점검한다.

/유호상 기자

<b>모 집</b>	<b>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b>	<b>상 담</b>
<b>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b>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l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li> <li>전북대학 토론과 민립 담담교수 역임</li> <li>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li> <li>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li> <li>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li> <li>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li> <li>스피치 칼럼리스트</li> <li>평생교육사</li> <li>심리상담사</li> <li>사회복지사</li> <li>전주매일 부사장</li> </ul>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b>학교별</b>	<b>주요과정</b>	<b>지역별(자유선택)</b>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b>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b> <b>※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b>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